

송시열의 제주유배 한시의 교육적 의미

김성태*

국문요약

송시열은 송자라 일컬어질 정도로 조선시대 후기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는 숙종의 세자 책봉에 반대하다 83세에 제주도로 유배를 왔다. 제주도는 극변인데다 조선시대에는 출륙금지령으로 인해 교육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문화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제주도에 온 유배인들은 당시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사대부는 본질적으로 정치인이자 교육자였기에 교육적 영향력도 상당했다. 대표적 인물이 송시열이다. 그는 제주향교에서 책을 빌려 적소에서 손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읽으며 토론을 벌였고, 시간적 여유를 활용하여 저술활동을 펼쳤다. 유배지라는 공간적 한계에 머무르지도 않았다. 편지를 주고받으며 문인들과 학문적 토론을 나눴다. 비록 제주도에 머문 시간이 100여일에 불과하였지만 교학활동에 이바지한 바가 컸기 때문에 서원 배향이 엄격히 금지되던 시기에도 굴림서원에 배향되었다. 특히, 송시열은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 한시 9편을 지었다. 그는 시를 통해 공부론적 측면에서 토론의 중요성을 드러냈고, 수양론적 측면에서 오륜을 체화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송시열의 제주유배생활을 기록한 글은 많이 있지만 그가 직접 쓴 글을 통해 그가 제주도 교육에 끼친 영향을 탐구하는 것은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 제주특별자치도 위미중학교 교사

점에서 의의가 깊다. 나아가 송시열은 제주를 떠난 후에도 그의 문인들이 행정가나 유배인으로 제주도에 와서 교학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주제어: 송시열, 유배, 한시, 토론, 오륜

I. 서론

송시열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성인의 반열에 올랐다는 징표로 송자라고 일컬어졌을 뿐 아니라 김정, 송인수, 김상헌 및 정온에 이어 궐림서원에 배향되어 제주 오현을 완성함으로써 제주도 교육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송시열은 300여 편에 달하는 상소와 헌의를 비롯하여 6000통이 넘는 편지 등 그의 문집인 『송자대전(宋子大全)』에만 8,315편에 달하는 많은 글을 남겼다. 특히, 600편에 달하는 비문, 묘갈, 묘지 등의 전기 자료는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에 수록된 자료의 10%를 넘게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양과 수준을 보여준다.

송시열은 제주도로 유배 와서 100일 남짓 머물렀다. 그러나 그는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저술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제주에서 머무는 동안 시, 편지를 비롯한 다양한 글을 총 20여 편이나 쓴 것으로 확인된다. 5일에 1편 꼴로 저술한 것으로 결코 적지 않은 분량이며 이러한 저술활동이 제주도 교육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송시열은 제주에서 한시 9편을 썼다. 총 21편의 글 가운데 거의 반에 해당하는 분량을 한시를 쓰는데 힘을 쏟았다. 조선 사회에서 시를 쓰는 능력은 사대부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었을 뿐만 아니라 관료가 되기 위해 익혀야 할 필요조건인 동시에 글씨,

그림과 함께 시인의 인격을 드러내고 인간과 사회, 나아가 자연까지도 포괄하는 중요한 매체였다. 공자는 ‘시경에 실린 시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생각함에 간사함이 없다’²⁾는 말로써 선비는 모름지기 시를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송시열이 제주에서 유배형을 사는 동안에 그가 쓴 한시를 분석함으로써 그의 제주유배한시가 갖는 교육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송시열의 제주 유배 생활에 대한 기록이 없지 않으나 자신이 직접 쓴 글을 통해 발자취를 가늠해보는 것이 보다 그의 본 뜻을 파악하는 데 가깝게 다가설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II. 송시열의 제주유배의 역사적 배경

숙종은 세자 시절 인경왕후와 결혼하여 둘 사이에서 세 딸을 두었으나 모두 일찍 죽었다.³⁾ 인경왕후마저 천연두로 20세에 죽자, 숙종은 1681년 인현왕후를 계비로 맞았다. 그러나 소생이 없었다. 그러던 가운데 1688년 10월 27일 소의(昭儀) 장씨가 왕자를 낳았다.⁴⁾ 숙종은 30살이 되어서야 왕자를 얻은 것이었다. 숙종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왕자가 태어난 지 3달이 채 되지 않은 1689년 1월 10일에 왕자의 명호 문제를 꺼냈고,⁵⁾ 다음날 왕자를 원자로 삼았다.⁶⁾ 그리고 유위한(柳緯漢)의 상소를 계기로 숙종은 전격적으로 1

2) 詩三百 一言以蔽之 思無邪, 『논어』 「위정」

3) 이덕일, 2000,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김영사, 357쪽.

4) 『조선왕조실록』, 숙종 14년 무진(1688, 강희27), 10월 27일(병인)

5) 『조선왕조실록』, 숙종 15년 기사(1689, 강희28), 1월 10일(무인)

6) 『조선왕조실록』, 숙종 15년 기사(1689, 강희28), 1월 11일(기묘)

월 15일 원자 정호를 종묘사직에 고하고, 소의 장씨를 희빈(禧嬪)으로 삼았다.⁷⁾

인조반정 이후 정권을 잡은 서인들은 산림숭용(山林崇用)과 국혼물실(國婚勿失)을 당파적 원칙으로 삼았다. 숙종의 정비인 인경왕후는 서인 김만중의 조카였고, 계비인 인현왕후도 서인 김수항의 종손녀이자 송시열과 친척관계에 있었다. 당연히 서인들은 원자 정호에 미온적이었고, 권력에서 배제되었던 남인들은 희빈 장씨의 편에서서 숙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러자 숙종은 서인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남인을 등용하였다. 기사환국이 시작됐다.

당시 서인의 영수로서 고향에 머물던 송시열은 1월 29일에 송나라 신종이 아들 철종을 10살 때까지 변왕에 머물게 하다가 자신이 병에 들어서야 태자로 책봉된 고시를 들며 원자 정호가 너무 이르다고 소를 올린다.⁸⁾ 그러나 2월 1일 송시열의 소를 본 숙종은 분노했다. 이미 종묘사직에까지 고한 일을 재론하는 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다. 숙종은 송시열을 바로 유배 보내려다 네 임금을 섬긴 노신인 이유로 삭탈관작하여 성문 밖으로 내치라고 명을 내렸다.⁹⁾ 그리고 2월 4일 다시 제주목에 안치시키고 엄중하게 천극(楸棘)하라 명을 내렸다.¹⁰⁾

유배형을 받은 송시열은 2월 8일 고향을 출발하여 3월 4일에 제주 북포에 도착했다. 북포는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 있었던 포구로 ‘큰성창’이라고도 한다. 그는 3월 5일 제주성으로 들어갔고, 다음날 위리안치되었다. 15일에는 「제주 굴림서원의 네 분 선생님께 고하는 글」¹¹⁾을 지어 아우 송시도, 송시결과 손자 송주석에게 굴림

7) 『조선왕조실록』, 숙종 15년 기사(1689,강희28), 1월 15일(계미)

8) 『송자대전 부록』 제11권

9) 『조선왕조실록』, 숙종 15년 기사(1689,강희28), 2월 1일(기해)

10) 『조선왕조실록』, 숙종 15년 기사(1689,강희28), 2월 4일(임인)

서원에 가서 제사를 올리도록 하였다. 당시 굴림서원에는 김정(1486-1521), 송인수(1499-1547), 김상헌(1570-1652), 정온(1569-1641)이 배향되어 있었다. 김정¹²⁾, 송인수¹³⁾는 1578년에, 김상헌¹⁴⁾, 정온¹⁵⁾은 1668년에 배향되었는데 김정과 정온은 유배로, 송인수는 목사로, 김상헌은 안무어사로 제주도와 인연을 맺었다.

송시열은 제주에서 111일을 머문 다음 5월 26일에 나갔다. 고향에서 제주로 올 때는 26일이 걸렸다. 5월 26일 제주를 떠나 6월 8일 정읍에서 사사되기까지 12일이 걸린 것과 비교해 보면 2배가 넘게 셈이다. 강진에 도착한 것이 2월 24일이었고, 바람이 심해 배를 띄우지 못해서 1주일이 지난 3월 3일에야 배에 오를 수 있었다는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미 송시열은 덕원, 장기, 거제 등지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복권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주로 유배 오면서도 풀려날 것이라 기대해서 제주로 오는 일정을 급하게 하지 않았을 수 있다. 아니면 후일 정권을 장악한 남인 세력이 서인의 거두 송시열을 제거하고자 급박하게 압송했을 수도 있다.

11) 嗚呼 °己乙之禍 °尙忍言哉 °至今士林 °氣短腸摧 °於惟沖老 °此焉譴謫 °寶唾清芬 °遍播海岳 °絕命之詞 °讀者傷魂 °一脈泓泉 °遺蹟尙存 °惟我圭翁 °曾佩茲紱 °惠政雖乍 °仁風未沫 °竟遭奇禍 °夙志未伸 °先祠閣閣 °聞者悲辛 °恭惟石室 °清修篤行 °銜綸此來 °敬宣王命 °南槎一錄 °長見寶重 °卒樹大節 °夷夏竦動 °亦粵桐溪 °遭時罔極 °一疏明倫 °剗瀝肝血 °十年梏棘 °素履無愆 °後來成就 °尤有大節 °唯茲四賢 °竝歷此邦 °所遭雖異 °其揆則同 °一心同照 °秋月寒江 °同堂脗享 °荔丹蕉黃 °杖屨攸暨 °草樹含香 °萬古遺風 °山高水長 °今茲小子 °罹此大何 °負犯極重 °情實無他 °聖哲仁恕 °誅殛罔加 °顧惟愚衷 °只爲聖朝 °要去諛淫 °以熄昏妖 °一身顛沛 °未遑計較 °怨仇日增 °厲階潛售 °然且不懲 °苦口抵死 °唯是蠢愚 °罔敢自信 °仰質明神 °敬承程準 °伏惟尊靈 °默垂誘掖 °苟使斯文 °賴不閉塞 °藐茲孤生 °九死靡悔 °不昧者存 °鑑我肝肺 °『송자대전』 제151권, 「제주굴림서원고사선생문」

12) 『충암집』
13) 『규암집』
14) 『청음집』
15) 『동계집』

Ⅲ. 송시열의 시작 활동

1. 송시열의 시 분류

송시열의 시는 모두 323편이다. 『송자대전』에 315편, 『송서습유』에 6편, 『송서속습유』에 1편과 제주로 유배오는 길에 보길도에서 지었다는 「암각시문」¹⁶⁾ 1편이 전해 온다. 송시열은 1607년 11월 12일(양력 1607.12.30.)에 태어나¹⁷⁾ 1689년 6월 8일(양력 1689.7.24.)까지¹⁸⁾ 81년 6개월 24일(29,792일)을 살았다. 1년에 4편이 못되는 시를 지은 셈이다. 그런데 제주 유배 때에는 111일 동안 총 9편의 시를 지었다. 1년으로 치면 거의 30편에 이르는 수준이고 평소보다 7배가 넘는 작품을 남겼다. 상당히 왕성한 창작활동이었으며 제주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형식면에서 볼 때, 송시열의 시는 부(賦) 1편, 오언고시 16편, 칠언고시 5편, 오언절구 53편, 칠언절구 133편, 오언율시 35편, 오언배율 2편, 칠언율시 77편과 미분류 1편이다.¹⁹⁾ 다양한 형식으로 시를 썼으나 오언절구, 칠언절구, 오언율시 및 칠언율시를 주로 썼음을 알 수 있다.

제주 유배 기간 가운데 오언절구 2편, 칠언절구 4편과 칠언율시 1편과 형식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2편을 포함하여 모두 9편을 썼다. 형식을 가늠하기 어려운 이유는 시의 일부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16) 八十三世翁 蒼波萬里中 一言胡大罪 三黜亦云窮 北極空瞻日 南冥但信風 貂裘舊恩在 感激泣孤衷

17) 『송자대전 부록』 제2권

18) 『송자대전 부록』 제11권

19) 『송자대전』 제2권 ~ 제4권, 『송서습유』 제1권, 『송서속습유』 제1권, 「암각시문」

2. 송시열의 제주유배 한시

1) 봄날 선산을 생각하다(春日憶先龍)²⁰⁾

한라산 아래를 영주라 이름하니
산 위에 아직도 한 길 눈이 쌓였네
멀리서 생각건대 교산엔 꽃이 난만하고
제수를 만들어 부모 산소에 올리리라

이 시는 칠언절구로 이루어져 있으나 시를 지은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첫째 행에 ‘한라산’, ‘영주’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제주에서 지은 것으로 보인다. ‘영주(瀛洲)’는 중국의 진시황과 한 무제가 불사약을 구하러 사신을 보냈다는 가상의 선경을 가리킨다. 진나라 때 방사인 서복(徐福)이 불로초를 찾아 서귀포를 다녀갔다는 기록이 있어 제주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쓰인다. 음력에서 봄은 1월에서 3월까지고, 선산을 생각한다는 것은 유배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후에 있음직한 일이다. 따라서 이 시를 지은 때는 3월 중하순이 될 것이다.

제주를 ‘제주’나 ‘탐라’가 아니라 ‘영주’로 표현한 것은 제주가 우리나라에서 봄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곳인데 한라산에는 아직도 눈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송시열은 기이하게 여긴 때문이다. ‘영주’는 신비로운 땅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셋째 행에 나타난 ‘교산(橋山)’은 원래는 중국 상고 시대 전설상의 임금인 황제(黃帝)가 묻혔다는 산으로 제왕의 능이 있는 산을 가리킨다. 하지만 여

20) 漢學山下號瀛洲 山上猶看丈雪留 緬憶橋山花爛熳 應隨油粉薦雙丘. 『송자대전』 제2권

기에서는 선산을 가리키는 듯하다. 마지막 행에서 부모 산소에 제수를 올리고 싶은 심정을 노래하기 때문이다.

송시열은 고향을 떠나 극지로 유배되면서 죽음을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주변을 정리하였다. 먼저 의금부 도사가 도착하기 전에 가묘에 배사하였다.²¹⁾ 2월 8일 집을 떠나면서 아들 송기태에게 효종의 수찰을 조정에 바치게 하였고, 2월 11일에는 연산을 지나다가 스승 김장생 묘소에 정철(鄭澈)의 후손이자 그의 문인인 정천(鄭滄)에게 「사계 선생의 묘에 고한 글[告沙溪先生墓文]을 지어 보냈다.²²⁾ 2월 16일에는 권상하에게 자신이 끝내지 못한 학문적 과업을 부탁하였다. 배에 오르기 전에는 증손 송무원(宋葵源)의 외조부 이단하(李端夏)에게 증손을 부탁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벽립만인(壁立萬仞)과 직지일자(直之一字)를 전했고, 증손 송일원(宋一源)에게는 불성부직(不誠不直)이라 적어 보냈다. 외손에게도 『주자행장(朱子行狀)』을 읽으라고 당부하였다.

조상께 배사하고 스승에게 글을 바쳤으며 후손에게 자신의 뜻을 전했고 제자에게 학문적 과업까지 당부한 송시열에게 부모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깊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후명(後命)을 받은 후 제주를 떠나면서 지은 「황고(皇考) 수옹 선생(睡翁先生)과 황비(皇妣) 정경부인(貞敬夫人) 곽씨(郭氏)의 묘에 고한 글」²³⁾에서도 그의 효성스러움은 잘 나타난다. 이처럼 돌아가신 부모께도 효를 다하고자 애쓰는 송시열은 제주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을 것이다.

21) 『송자대전 부록』 제14권

22) 『송자대전 부록』 제11권

23) 『송자대전』 제151권

2) 탐라 적소에서(耽羅謫所)²⁴⁾

아우와 형 손자와 자질이
 하늘 끝에서 같이 있음 기쁘구나
 백수 어느 때 고향을 향할거나
 낮선 타향 고향만 같구려

이 시의 형식은 오언절구이며 저술일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제주에서 쓴 글이다. 제목이 ‘탐라적소에서’인데 탐라는 제주를 가리키고 적소란 귀양지를 말하기 때문이다. 송시열은 유배형에 처해져서야 처음으로 제주 땅을 밟았다. 1, 2행에는 위리안치의 형을 받았으나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어서 기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를 땅 끝도 아닌 ‘하늘 끝[天外]’이라 표현한데서 알 수 있듯이 지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먼 곳이었다. 그러나 아직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초조함이 보이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린다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김수항에게 사사의 명이 떨어지기 전일 가능성이 높다. 김수항이 4월 9일에 후명을 받았으므로 이 시를 쓴 시기는 유배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한 윤3월 어느 때로 추정된다. 또한 4월 29일 동생 송시도가 병이 깊어 고향으로 돌아간다. 동생을 보내면서 송시열이 상당히 슬퍼했는데, 이 시에는 가족과 행복하게 지낸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이전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위리안치형에도 불구하고 형제와 자손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송시열의 정치적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실감하게 한다. 언젠가 복권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기대도 없진 않아 보

24) 弟兄孫子姪 天外喜同堂 白首何丘首 他鄉似故鄉. 『송자대전』 제2권

인다. 또한 제주를 좋아한 것인지 유배 생활에 익숙해진 덕인지 제주 생활을 고향에서 지내는 것처럼 편안하게 느낀다. 이처럼 송시열은 유배 생활 가운데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는다. 유배를 오는 도중에도 그러했다. 유배형이 떨어졌을 때 망망대해를 건너는 것이 소원이었다며 즐거워했고, 죄인의 처지라 한라산에 오르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한스럽게 생각했다.²⁵⁾ 제주로 가는 배에 오를 때에는 소식의 시, 「6월 20일 밤, 바다를 건너며」²⁶⁾를 외었다. 소식은 그 시를 하이난 섬에서 3년간 유배 생활을 마치고 떠나면서 지었다. 유배 당시 소식의 모습을 그린 『동파입극도(東坡笠屐圖)』도 유명한데 허유는 이 그림을 따라 제주에 유배 중인 스승 김정희를 찾아 『완당선생해천일립상(阮堂先生海天一笠像)』을 그리면서 제주와의 인연을 이어갔다.²⁷⁾ 또한 송시열은 배가 파도에 심하게 흔들려 선원마저 혼비백산하여 우왕좌왕할 때 주희의 「취하축융봉」²⁸⁾을 읊으면서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²⁹⁾

송시열은 검소하게 산 것으로 유명하다. 형편이 어려워 부모가 요를 깔지 못하고 살았다며 송시열은 사약을 받을 때에도 자리를 새로 바꾸자는 제자들의 청을 거절했다. 벼슬한 기간도 길지 않아 형편도 곤궁했다. 익산군수로 있던 동생 송시도가 보내준 쌀과 콩

25) 『송자대전 부록』 제14권, 「어록」 1, 권상하의 기록

26) 남쪽 변방에서 아홉 번 죽어도 내 한 될 것이 없고(九死南荒吾不恨) 이 유람의 기이한 감회 평생에 제일이다(茲遊奇絕冠平生), 소식, 「6월 20일 밤, 바다를 건너며」[六月二十日夜渡海], 리귀원, 김세영 옮김, 2009, 『중국 문인의 비정상적인 죽음』, 에버리치홀딩스, 307쪽

27) 김권섭, 2010, 『선비의 탄생』, 다산북스, 451쪽

28) 내가 만리길을 걸어 바람 받으며 서있으니(我來萬里駕長風) 골짜기에서 피는 구름은 내 가슴속을 씻어준다(絕壑層雲許盪胸). 막걸리 석 잔을 마시니 호기가 솟아(濁酒三盃豪氣發) 낭랑히 시를 읊으며 축융봉을 날 듯이 내려왔다(朗吟飛下祝融峰), 주희(朱熹), 「취하축융봉(醉下祝融峰)」

29) 『송자대전 부록』 제11권

으로 연명한 적도 있었다.³⁰⁾ 높은 벼슬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축재하지 않았으며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지도 않아 여러 사람의 귀감이 되었다.

김정희는 제주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중에 송시열의 적거지를 찾아 송시열이 텃밭에 생강을 심었던 일을 기려 시를 지었다.³¹⁾ 최익현도 「우암선생적려유허비」를 찾아보고 시를 통해 송시열의 모습을 되새겼다.³²⁾ 노론의 영수이면서 80을 넘긴 인물이 사군자를 길러 완상한 것이 아니라 직접 농사를 짓는 모습을 제주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을지, 교육적 효과는 어느 정도였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하겠다.

3) 주석의 운에 차하여 옥주를 통곡하다(次疇韻哭沃州)³³⁾

인재가 어느 시대인들 이보다 성할까
천지의 경륜 지사가 슬퍼한다
옥도의 슬픈 바람 대나무에 부니
전후에 걸친 단심 하늘이 알리라

이 시는 칠언절구로 『송자대전』 제2권에 실려 있다. 주석은 송시열의 손자인 송주석으로서 송시열이 제주로 유배 올 때 따라 와서 송시열의 수발은 든다. 옥주는 진도(珍島)의 별명이다. 송시열이 제

30) 『송자대전』 제42권, 「이정백(李靜伯)에게 답함 - 신해년(1671)」

31) 行人下馬短碑前 金煥心家舊蹟傳 一酌橋林明志事 至今彈淚種薑年, 『阮堂全集 第10卷』 「尤齋遺墟碑」

32) 一宿楚山慷慨多 餘心到此更如何 種薑編禮當年事 猶有清風拂面過, 『勉菴集』, 「右遺墟碑」

33) 人材何代盛於斯 川止經綸志士悲 沃島悲風吹竹樹 丹衷前後上天知, 『송자대전』 제2권

주로 유배될 때 김수항은 진도에 유배되었다가 4월 9일 사사되었다.34) 김수항은 김상헌의 손자로서 송시열의 문인이기도 하다. 김상헌을 또한 굴림서원에 배향되었다. 이 시는 송시열이 김수항이 사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었다.35)

천지(川止)는 화천군(花川君) 심정과 지정(止亭) 남곤을 가리키고, 지시는 조광조를 일컫는다. 심정과 남곤은 기묘사화를 일으켜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파를 모조리 숙청한다. 김정도 그 때 제주로 유배왔다가 사사되었다. 송시열은 자신을 조광조에 빗대며 김수항의 죽음을 슬퍼한다. 김정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을 것이다. 김수항을 대나무로 은유하며 그 붉은 마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 예언한다.

이 시는 손자 송주석의 시를 차운하여 지었다. 차운(次韻)이라는 형식은 남이 지은 시의 운자(韻字)를 따서 시를 짓는 방법으로서 기본적으로 대화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토론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손자를 가르치고자 하는 할아버지의 사랑과 가학(家學)의 전통이 잘 드러나 있다. 당시 교육의 한 축이었던 가학의 모습은 제주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것이다.

4) 무제(無題)36)

바닷가 이곳 온 지 몇 날이던가
쫓겨난 신하 외로운 생각 끝이 없어라
비 내리는 산허리 구름은 늘 캄캄하고

34) 이덕일, 2000,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김영사, 377쪽.

35) 『송자대전 부록』 제11권

36) 衝海此來知幾日 逐臣羈思莽何窮 雨渾山腹雲常黑 霧暗城頭日不紅 聞說驪尼眞道學 却看閩洛是倥侗 可憐沃島魂長逝 誰向蒼梧取正中, 『송자대전』 제2권

안개 낀 성 머리 햇빛이 없구나
 듣건대 여니가 참 도학이라니
 정자 주자는 명칭이가 되겠군
 가엽구나 옥도의 냇 길이 떠났으니
 누가 창오를 향해 정중을 취할 건가

「무제(無題)」는 제주에서 지은 시로는 유일하게 칠언율시 형식으로 되어있으며 『송자대전』 제2권에 실려 있다. 1행에는 송시열이 바닷가에서 지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유배를 당했는데 그 때마다 거제도와 제주도, 바닷가에서 살았다. 숙종 1년에 처음으로 유배형을 받았을 때에는 함경도 덕원으로 갔다가 경상도 장기로 이배되었다. 그 후 다시 거제도로 이배되어 거기에서 1년 동안 지내다가 청풍으로 이배되었다가 해배를 맞는다. 그는 거제도에 머물 때 반곡서당을 세워 후학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2행에는 절해고도에 위리안치된 사람의 외로움을 그대로 드러냈다.

3행의 ‘비 내리는 산허리 구름은 늘 캄캄’한 것으로 보아 한라산이 높은 산임을 실감할 수 있다. 구름이 산허리에 걸릴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땅 끝에서 다시 배에 올라 다다른 바다 끝이라는 거리만으로도 기가 질리지만 쉽게 접하기 어려운 풍광은 더욱 유배객의 심사를 외롭게 하였을 터다. 그런데다 섬이란 게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 안개도 자주 끼고 습도도 높다. 습도가 높다는 것은 쾌적함과 거리가 있으니 80을 넘긴 송시열은 더욱 힘들었을 터다.

5행의 여니(驪尼)는 윤희와 윤선거를 말한다. 윤희가 여주(驪州)에 살았고 윤선거는 노성(魯城)에 살면서 이성(尼城)이라고 호했기 때문이다. 민락(閩洛)은 정명도, 정이천 형제와 주회를 가리킨다. 정명도와 정이천은 낙양(洛陽) 사람이고, 주회는 지금의 복건성(福建省)

인 민(閩) 땅 사람이기 때문이다. 송시열은 윤희와 윤선거를 정명도, 정이천 및 주희의 대립항으로 놓고, 김수항마저 떠난 조정이 흔들릴까 두려워한다. 창오는 순임금이 죽은 곳으로 여기에서는 숙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정중을 지키지 못하고 한 쪽으로 치우쳐 가는 당시의 정세를 걱정하는 것이다.

7행에 ‘가엽구나 옥도의 냇 길이 떠났으니’라는 시구가 있다. 옥도는 진도(珍島)의 옛 이름이다. 옥도의 냇은 김수항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시는 4월 9일 김수항이 사사된 후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김수항의 죽음은 송시열에게 큰 충격이었던 것 같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시만 3편이다.

5) 반궁의 요려 앞에 이르러(却到泮宮腰膂處)³⁷⁾

이 시는 이이와 성혼이 출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은 것으로 『송자대전 부록』 제11권에 실려 있다. 원성(原城)의 유학(幼學) 안전이 2월 22일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을 문묘(文廟)의 배향(配享)에서 내치라는 소(疏)를 올렸다.³⁸⁾ 3월 3일 진사 홍만적이 안전의 주장을 비판하였으나 숙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³⁹⁾ 그러자 진사 이현령이 3월 12일 홍만적을 배척하는 상소를 올렸고,⁴⁰⁾ 3월 14일 대사간(大司諫) 권해(權瑫)와 헌납(獻納) 이현조(李玄祚)도 이이, 성혼의 출향을 청했다.⁴¹⁾ 3월 15일 숙종은 이현령이 세 차례나 소를 거듭하자 출향의 시비를 가리라고 명한다.⁴²⁾ 3월 17일 진사 심제현이 이이를

37) 却到泮宮腰膂處 泣麟餘涕謾沾裾, 『송자대전 부록』 제11권
38) 『조선왕조실록』, 숙종 15년 기사(1689, 강희28), 2월 22일(경신)
39) 『조선왕조실록』, 숙종 15년 기사(1689, 강희28), 3월 3일(경오)
40) 『조선왕조실록』, 숙종 15년 기사(1689, 강희28), 3월 12일(기묘)
41) 『조선왕조실록』, 숙종 15년 기사(1689, 강희28), 3월 14일(신사)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고⁴³⁾ 영부사 이상진이 차자를 통해 이이와 성혼의 출향을 주장하자 숙종은 엄비를 내렸고⁴⁴⁾ 다음날 이이와 성혼의 출향이 결정된다. 따라서 위 시는 3월 말에 지은 시라고 할 수 있다. 2구가 남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궁의 요려 앞에 이르러
 님 위한 눈물 옷깃 적시네

반궁은 제주국에 있는 국학기관을 말한다. 요려는 허리와 팔이 잘린 공자의 소상(塑像)을 가리킨다. 이는 주희가 어떤 사람에게 준 글에 “근자에 들으니, 향교(鄕校)가 승방(僧房)이 되고 공자의 소상이 허리와 팔이 잘린 채 길가에 버려졌다.” 한 말을 전용(轉用)한 것이다.⁴⁵⁾ 송시열은 이이와 성혼의 출향을 반궁의 요려로 은유하여 슬픔을 전한다. 또한 안전(安眠)이 두 사람의 출향과 함께 자신을 종통을 어지럽히고 국본을 동요시켰다고 비판한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만년의 영광이라고 여긴다. 송시열은 「탐라(耽羅) 도중에서 외재(畏齋), 현석(玄石)에게 보내다(耽羅道中寄示畏齋玄石).」⁴⁶⁾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 자신이 주희와 이이를 계승했다는 점을 분명히 피력했다. 여기에서 송시열의 강직한 성격이 잘 드러난다. 그는 수양의 방법으로 직(直)을 강조했는데 이 시에서 그의 강직함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는 평소 부인에게도 항상 존대했고, 신분에 구애됨이 없이 소탈하고 편견 없이 사람들을 대했다. 그러나 주희의 사상

42) 『조선왕조실록』, 숙종 15년 기사(1689,강희28), 3월 15일(임오)

43) 『조선왕조실록』, 숙종 15년 기사(1689,강희28), 3월 17일(갑신)

44) 『조선왕조실록』, 숙종 15년 기사(1689,강희28), 3월 17일(갑신)

45) 『송자대전 부록』 제11권

46) 『송자대전』 제2권

을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직된 자세를 보였다. 시문 난적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다.

6) 부질없이 읊다(漫吟)⁴⁷⁾

「부질없이 읊다」는 칠언절구로 『송자대전』 제2권에 실려 있다. 1행에서 참된 유현은 이이와 성혼을 가리킨다. 두 사람은 3월 18일에 문묘에서 출향되었다.⁴⁸⁾ 또한 현신은 김수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김수항이 4월 9일에 사사되었으니 이 시는 그 이후에 지은 것이라 하겠다.

참된 유현 출향되고 현신이 죽으니
시인을 원망 않고 하늘을 원망하네
주자를 출생시킴 뜻 있는 듯했지만
문득 경원의 해를 만나게 했구려

2행에서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늘을 원망한다고 하였으나 위리안치된 죄인으로서 사사당할 지도 모르는 엄혹한 현실 때문에 쉽사리 말을 할 수 없었던 탓인 듯하다. 경원의 해[慶元年]는 1195-1200년 사이에 있었던 경원의 당금[慶元 黨禁] 사건을 가리킨다. 당시 중국 남송의 한탁주는 참언으로 조여우(趙汝愚)를 재상의 지위에서 몰아내고, 주희 등 학자들이 받들고 있는 정자(程子)의 학을 위학(僞學)이라 배격하여 그들이 벼슬자리에 오르는 것을 금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많은 명사(名士)에게 죄를 씌워 탄압하였다. 송시열은 자

47) 眞儒黜享賢臣死 不怨時人只怨天 生出晦翁如有意 却令逢著慶元年, 『송자대전』 제2권

48) 『조선왕조실록』, 숙종 15년 기사(1689, 강희28), 3월 18일(을유)

신을 주회와 동일시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리라는 의연한 자세를 다짐한다. 여기에서도 올바름[直]을 강조했던 송시열의 삶의 자세가 잘 드러난다.

7) 단장의 해문에서 수평선 바라보니(魂斷海門空極目)⁴⁹⁾

「단장의 해문에서 수평선 바라보니」는 동생 송시도(宋時燾)가 송시열을 따라 제주에 왔다가 병에 걸려 4월 29일 제주를 떠나자 송시열이 지은 시다.⁵⁰⁾ 『송자대전 부록』 제11권에 시의 일부가 남아 있다. 송시도는 송시열과 함께 김장생을 사사하였고, 송시열이 덕원으로 유배되었을 때에도 벼슬을 그만두고 따라가 시중을 들었다. 제주에도 따라와 위리안치로 거동이 여의치 않았던 형을 대신하여 동생 시걸, 종손(從孫) 주석과 굴림서원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단장의 해문에서 수평선 바라보니
하늘 가 저 기러기 차마 못보겠네

송시열은 동생 송시도와 이별하면서 다시 만날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나 보다. 혼이 갈가리 찢기니[魂斷] 심정으로 동생이 떠난 수평선을 바라보다 하늘을 나는 기러기를 차마 보지 못하고 눈을 감는다. 기러기는 두 번 짝을 짓지 않으며 하늘을 날 때 열을 흘뜨리거나 차례를 잃지 않는다. 송시열은 기러기를 통해 성실한 삶의 자세와 깊은 형제애를 드러낸다. 부모에 대한 효와 더불어 형제에 대한 깊은 애정은 오류를 인간관계의 기본 축으로 삼았

49) 魂斷海門空極目 不堪天末雁行聯, 『송자대전 부록』 제11권

50) 『송자대전 부록』 제11권

던 조선 시대 제주 사람들에 상당한 교육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8) 오월 사일(五月 四日)⁵¹⁾

「오월 사일」은 오언절구 형식을 취한다. 송시열이 이 작품을 언제 썼는지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다. 다만 이 시가 『송자대전』 2권 「탐라로 가는 배에서」와 「탐라 적소에서」 사이에 실려 있다. 「탐라로 가는 배에서」는 1689년 작품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탐라 적소에서」는 송시열이 유배 왔음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오월 사일」은 제주도 유배 시절에 쓴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5월 4일은 효종의 휘일(諱日, 죽은 날)로 송시열이 곡을 하고 글을 지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서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⁵²⁾

이날이 무슨 날이던고
외로운 충정 상제께서 강림하시리
새벽에 통곡하고 나서
무릎 안고 다시 시 읊었노라

송시열은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가 1688년 8월에 승하하자 문상을 갔다가 효종이 묻힌 영릉에도 들러 작별을 고했다.⁵³⁾ 워낙 연로한 탓에 앞일을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 해 제주로 유배되어 위리안치된 상황에서도 지극한 정성으로 곡을 하고 시를 지음으로써 임금에 대한 신하의 충성된 자세를 잃지 않았던 것이다.

51) 此日知何日 孤衷上帝臨 侵晨痛哭後 抱膝更長吟, 『송자대전』 제2권

52) 『송자대전 부록』 제11권

53) 『송자대전 부록』 제11권

이처럼 송시열이 충성을 다하는 모습도 제주 사람들에게 큰 교육적 효과를 일으켰을 것이다.

9) 치도를 생각하다(憶致道)⁵⁴⁾

「치도(致道)를 생각하다」는 칠언절구로 『송자대전』 제2권에 실려 있다. 1행에 ‘만 리 바다길에 소식이 끊겼으니(萬里滄溟消息斷)’라는 시구가 있어 송시열이 제주도에서 쓴 시라는 것이 드러난다. ‘헤어진 지 여름이 지났으니 마음 어떠한가(相離涉夏意何如)’라는 시구로 보면, 시를 쓴 때는 5월 어느 때인 것으로 보인다. 음력에서 여름은 4월에서 6월까지고 송시열은 5월 26일에 제주도를 떠났기 때문이다. 치도는 권상하의 호다. 권상하는 송시열의 수제자로서 송시열이 유배길에 올랐을 때 처음부터 동행하다가 2월 16일에 헤어진다.⁵⁵⁾ 송시열이 자신이 남긴 학문적 과업을 권상하가 마무리하기를 바라며 제주까지 따라오는 것을 만류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문적 토론 상대자가 없는 유배지는 적막했다. 송시열은 제주에서 권상하에게 편지를 5통이나 보냈다. 제주에서 쓴 편지가 모두 7통인데, 박세채에게 1통, 민진강에게 1통 보낸 것을 제외하면 모두 권상하에게 쓴 편지인 사실에서 미루어 보면, 송시열이 얼마나 권상하를 그리워했는지 잘 알 수 있다. 그런 권상하를 그리워하면서 쓴 시가 「치도(致道)를 생각하다[憶致道]」이다.

헤어진 지 여름이 지났으니 마음 어떠한가

54) 相離涉夏意何如 猥說年前德不孤 萬里滄溟消息斷 連床能憶舊時無, 『송자대전』 제2권

55) 『송자대전 부록』 제11권

전엔 덕불고의 외람된 말 하였지
만 리 바닷길에 소식이 끊겼으니
책상을 마주했던 옛 일이 생각나네

2행에 나온 덕불고(德不孤)는 논어 이인(里仁) 편에 나오는 ‘덕은 외롭지 아니한지라 반드시 이웃이 있느니라(德不孤 必有隣).’에

서 유래한다. 강직했던 송시열도 주위에 동생과 손자 등 가족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낀다. 학문에 대한 열정과 인간적 외로움이 잘 묻어나는 시라고 할 수 있다.

IV. 송시열의 제주유배 한시의 교육적 의미

송시열의 제주유배한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유가의 학습법은 공자의 공부론에서 비롯하여 맹자의 사단과 양기론을 거쳐 송대 성리학에 이르러 격물치지와 거경공리로 완성된다.⁵⁶⁾ 따라서 송시열의 제주유배한시도 격물치지를 중심으로 하는 공부론과 거경공리를 축으로 하는 수양론으로 분석할 수 있다.

1. 송시열의 제주유배 한시의 공부론적 측면

학습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학습법이 소개되고는 있으나 전통적인 학습법 가운데에서도 현재까지도 효과성이 인정되

56) 정학섭, 2010, 「유가사상 공부론과 수양론의 탐색」, 『동양사회사상』 21, 231쪽

어 널리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토론학습법이다.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이라는 변증법(dialectics)이나 공자를 위시한 제자백가가 벌였던 치열했던 사상투쟁도 토론과 다르지 않다. 현대에 이르러 CEDA 토론학습법, 피라미드 토론학습법, 신호등 토론학습법, 터부 토론학습법, 찬반논쟁 토론학습법, 패널 토론학습법, 브레인라이팅(Brainwriting) 토론학습법 등 다양한 학습법이 개발되었지만⁵⁷⁾ 타자의 존재와 다름을 인정하는 민주적 성격과 기존 지식을 답습하지 않는 비판적 사고력(critical thinking)을 개발한다는 근본정신은 달라지지 않았다.

「주석의 운에 차하여 옥주를 통곡하다(次疇韻哭沃州)」는 형식 면에서 토론의 성격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이 시는 차운시로서 손자 주석이 지었던 시의 운을 가져와 시를 지었기 때문이다. 운을 빌었다 함은 평소에도 송시열이 손자와 시를 주고받았음을 뜻한다. 특히, 한시를 짓는 것은 특정한 형식을 반드시 따라야 하고 시가 생각하는 바를 간결한 방식으로 드러내는 장르라는 사실에 비취 본다면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교수-학습의 장이 펼쳐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송시열은 집안을 다스릴 책임을 아들 송기태에게 맡겼기 때문에 유배지에 따라와 송시열의 수발을 들었던 사람은 송주석이었다. 송주석은 할아버지의 명으로 작은 할아버지 송시도, 송시결과 함께 풀림서원에 가서 고하기도 하고, 제주 향교에서 『주자대전』, 『주자어류(朱子語類)』, 『역학계몽(易嬖啓蒙)』, 『강목(綱目)』을 빌려와 할아버지와 함께 읽기도 했다. 이러한 교육의 모습은 제주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치도를 생각하다(憶致道)」에서 치도는 권상하를 가리키는데 권상

57) 황연성, 2011, 『신나는 디베이트』, 22쪽

하(權尙夏, 1641-1721)는 기호학파의 정통 계승자이자 송시열의 수제자다.⁵⁸⁾ 송시열이 집안을 아들 송기태에게 맡겼다면 학문은 권상하에게 부탁하였다. 권상하는 송시열이 유배길에 오른 때부터 배행하여 제주까지 오려고 하였으나 송시열은 권상하에게 학문적 과업을 부탁하며 뒤에 남으라고 하였다. 『주자대전차의』, 이이의 글, 김장생과 이항복이 주고받았던 편지, 『이정전서』, 『주자어류』 및 『퇴계전서차의』를 교정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제주에 위리안치되고 나니 적적하였다. 가족이 함께 있고, 동생과 손자와 학문적 토론이 불가한 것도 아니었지만 학문적 수준 차이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인지 송시열은 외로움을 토로했다. 그는 시를 지은 것만이 아니라 편지도 5통이나 보냈다. 송시열의 제주에서 쓴 편지가 모두 7통인데 5통을 권상하에게 보냈다는 것은 상당한 양이며, 제주에 머문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한 달에 1통 꼴로 보낸 셈이라 당시의 교통편을 고려하면 대단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간절하고 긴밀한 사제 관계이자 학문적 동지 관계는 제주 사람들에게 깊은 의미를 전했을 것이다.

2. 송시열의 제주유배한시의 수양론적 측면

공자의 인을 맹자는 성선설을 바탕으로 사단⁵⁹⁾과 오륜⁶⁰⁾으로 이

58) 김성태, 양진건, 2014, 「우암 송시열의 유배가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 『석당논총』 59집, 368쪽

59) 無惻隱之心 非人也 無羞惡之心 非人也 無辭讓之心 非人也 無是非之心 非人也. 惻隱之心 仁之端也 羞惡之心 義之端也 辭讓之心 禮之端也 是非之心 智之端也. 『맹자 공손추편』

60) 后稷 教民稼穡 樹藝五穀 五穀 熟而民人 育 人之有道也 飽食煖衣 逸居而無教 則近於禽獸 聖人 有憂之 使契爲司徒 教以人倫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맹자 등문공편』

었다. 오류는 우리나라에서 유교가 관학으로 정립된 조선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장려된다. 1431년(세종14)에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가 간행되고, 1518년(중종13)에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가 간행되며, 1797년(정조21)에 이르러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로 확립되었다. 박세무(1487-1554)는 어린이를 가르치기 위해 『동몽선습』을 썼는데 오류를 출발점으로 삼았다.⁶¹⁾ 1666년에 김수항은 현종에게 원자에게 진강할 책으로 『동몽선습』을 추천했다.⁶²⁾ 김수항은 송시열의 문인으로 송시열이 제주로 유배 올 때 진도로 유배되었다가 사사된 인물이다. 송시열은 1670년에 「동몽선습 발문」⁶³⁾을 썼고, 1671년 우의정에 제수되면서 세자사부(世子師傅)를 겸했다. 이처럼 송시열은 오류에 대해서도 관심이 깊었고, 수양론을 통해 오류를 체화하려고 노력했다. 자연스럽게 제주유배한시에도 그의 삶의 자세가 배어있다.

「봄날 선산(先山)을 생각하다(春日憶先壟)」에는 부자유친의 효가 잘 드러나 있고, 「오월 사일(五月 四日)」에는 군신유의의 충이 담겼

61) 박세무 외, 조기영, 2012, 『동몽선습 외』, 지식올만드는지식, 154쪽

62) 『조선왕조실록』, 현종 7년 병오(1666,강희 5), 3월25일 (을사)

63) 孟子曰 °讀其書誦其詩 °不知其人可乎 °余幼時 °見人家子弟初學者 °無不以是書爲先 °而第不知出於何人之手矣 °今朴上舍廷儀氏來謂余曰 °此吾高祖諱世茂之所編也 °余不覺驚喜曰 °今日始知其人矣 °公爲明廟朝名臣 °其學問有淵源 °而門路亦甚正 °觀於此編則可知矣 °其該括約說 °無非學問中體認一大公案 °而所序歷代 °又史家之總目也 °或疑編內所輯理氣性命等說 °非童學所能知 °此則不知作者本意所在也 °朱子嘗論仁說曰 °此等名義 °古人之教 °自小學之時 °已有白直分明訓說 °得知此道理 °不可不著實踐履 °所以實造其地位也 °若茫然理會不得 °則其所以求之者 °乃其平生所不識之物 °復何所向望慕愛而知所以用其力耶 °今之童學 °略識諸般名義界限 °終有所歸宿者 °必於此書而得之 °其功豈不大哉 °竊聞今上殿下每臨筵 °喜說此書 °睿學之明 °其必有以識此矣 °公字景蕃 °咸陽人 °登第始爲翰林 °官止監正 °蘇齋盧相公守愼以嘗著此書 °訓其子弟 °載公墓碣云 °崇禎紀元之商橫闌茂陽月日 °恩津宋時烈謹跋 °『송자대전』 제146권

다. 송시열의 부인 이씨는 1677년 3월 22일에 죽는다. 그때 송시열은 장기에서 유배생활을 하고 있어서 임종을 하지 못했다. 부인을 떠나보낸 송시열은 「망실 이씨에게 제를 올린 글(祭亡室李氏文)⁶⁴」을 쓴다. 곤궁했던 가정형편과 먼저 보낸 자식들 때문에 애끓어했던 마음을 잘 담았다. 제주에서 쓴 시에 부부유별의 정을 담을 수는 없었지만 앞글을 통해 송시열의 사랑을 짐작할 수 있다. 「탐라적소에서(耽羅謫所)」와 「단장의 해문에서 수평선 바라보니(魂斷海門空極目)」에는 송시열이 형제와 자손을 향한 장유유서의 정을 느낄 수 있다. 직(直)을 강조하는 엄부의 모습도 보이니 제주로 오는 배에 오르면서도 증손과 외손까지 염려하는 송시열은 자애로운 할아버지의 모습 그대로다. 마지막으로 「주석의 운에 차하여 옥주를 통곡하다(次疇韻哭沃州)」, 「무제(無題)」 및 「치도를 생각하다(憶致道)」에는 봉우유신의 우정이 잘 드러나 있다. 정치적 동지였던 김수항의 죽음을 애도하고, 학문적 친구였던 권상하를 그리워하는 모습은 제주 사람에게 감화를 주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 정치계와 사상계를 주름잡았던 송시열이 제주 유배생활 가운데 지었던 한시의 교육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송시열은 제주에서 100여 일밖에 지내지 않았지만 1694년에 굴림서원에 배향되어 제주 오현으로 추앙받았다. 당시는 서원 배향인물 선정 금령이 내려져있던 때였는데도 제주 유생 김성우의 상소가 받

64) 『송자대전』 제153권

아들여져 갑술환국으로 송시열이 복권되자마자 글림서원에 배향되었다.⁶⁵⁾ 그만큼 그가 제주 교육에 끼친 영향이 상당했음을 반영한 것이다.

송시열은 제주에서 9편의 한시를 지었다. 거의 10일에 1편씩 쓴 셈이다. 양적으로도 대단했지만 내용면에서도 제주교육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 조선시대 내내 강조되었던 오륜을 충실하게 담고 있기 때문이다. 송시열이 제주로 유배오기 전에 부인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부부유별을 보여주는 시가 없는 것만 제외한다면, 「봄날 선산(先山)을 생각하다(春日憶先壟)」에는 부자유친의 원리를 보여주고, 「오월 사일(五月 四日)」에는 군신유의를 담았다. 「탐라 적소에서(耽羅謫所)」와 「단장의 해문에서 수평선 바라보니(魂斷海門空極目)」에는 장유유서의 원리를 새겼고, 「주석의 운에 차하여 옥주를 통곡하다(次疇韻哭沃州)」, 「무제(無題)」 및 「치도를 생각하다(憶致道)」에는 봉우유신을 드러냈다.

이 연구가 송시열이 제주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교육적 영향을 끼친 점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다. 송시열이 위리안치형을 받았기 때문에 제주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류하기는 어려웠고, 시의 특성상 내용을 풍부하게 드러내기보다는 간결한 형식 안에 담아내기 때문에 교육적 의미를 끌어내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기록에 매달리기보다는 송시열의 저작을 직접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누군가를 기록한다는 일은 기록자의 평가와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그 기록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엄밀성을 획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시를 제외한 다른 형식의 글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송시열이 제주 교육에 끼친 영향을 분명하게 밝힌다면 제주교육사의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65) 양진진, 『제주유배길에서 만난 사람들』, 제주대학교출판부, 2012, 77쪽.

참고문헌

『규암집』

『논어』

『동계집』

『맹자』

『송자대전』

『송자대전 부록』

『송서습유』

『송서속습유』

『암각시문』

『조선왕조실록』

『청음집』

『충암집』

주희(朱熹), 「취하축음봉(醉下祝融峰)」

김권섭, 2010, 『선비의 탄생』, 다산북스

리귀원, 김세영 옮김, 2009, 『중국 문인의 비정상적인 죽음』, 에버리치홀딩스

박세무 외, 조기영 옮김, 2012, 『동몽선습 외』, 지식음만드는지식

양진건, 2012, 『제주유배길에서 만난 사람들』, 제주대학교출판부

이덕일, 2000,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김영사

정학섭, 2010, 「유가사상 공부론과 수양론의 탐색」, 『동양사회사상』 21

황연성, 2011, 『신나는 디베이트』

Abstract

The Educational Meaning of Song Siyeol's Chinese Poetry During Exile in Jeju

Kim, Seong-Tae

Song Siyeol influenced late Joseon Dynasty as much as he was called 'Songja'. He was exiled to Jeju because he opposed King Sukjong's decision of installation of crown prince. People in Jeju had difficulty in getting political, economical, and cultural benefit including educational one because Jeju is the frontier and there was the ban from leaving Jeju. Knock-out politicians who were exiled to Jeju wielded important influence. The Confucian nobility was a politician and educator, so his or her educational influence was considerable. Song Siyeol also borrowed some books from hyanggyo, read and debated one another with people including his brothers and grandson, and wrote books. Additionally, he was not confined to a place of exile. Even if he stayed in Jeju for about 100 days, his contribution to education in Jeju was great, so he was canonized into a Confucian memorial hall, Gyulimseowon although canonization was strictly prohibited then. When Song siyeol was canonized at Gyulimseowon after Gim Jeong, Song Insu, Gim Sangheon, and Jeong On, five sages in Jeju was decided. Canonization of five sages is significant as the work of confirming pedigree of Dotong. Especially, Song Siyeol wrote 9 poems. Even though there are many records about Song Siyeol's life during exile in Jeju, it's significant to study his influence on education in Jeju through his writings because we can grasp direct associative relation. Song Siyeol gave two kinds of influence on education

in Jeju. One is the theory of study, the other is the theory of cultivating mind. Song Siyeol showed that debate is one of the best method of study. Also he exemplified himself as Oryun which refers to The basic principles of the practical morality of Confucian ideas, that is justice and righteousness between king and subject; affection between father and son; etiquette between husband and wife; discrimination between young and old; trust between friends.

Keywords: Song Siyeol, Exile, Chinese poetry, Debate, Oryun

교신 : 김성태 697-803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420-2
레노시스 2차 601호 (E-Mail: kst0521@naver.com)

논문투고일 : 2015. 1. 6

수정완료일 : 2015. 7. 14

게재확정일 : 2015. 8. 7